

텍스트의 혼질성 해결을 위한 텍스트 언어학과 기호학의 관계*

– 이야기의 구조를 중심으로

김휘택**

【 차 례 】

- I. 서론
- II. 텍스트의 문법
- III. 텍스트로서의 사건
- IV. 이야기의 혼질성과 구조화
- 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의 혼질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서 이야기의 구조가 가지는 의미를 연구할 것이다. 우선 사건이 이야기가 되는 과정을 구조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한다. 사건은 이야기라는 언어행위의 실질이다. 즉 이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사건이 분절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텍스트의 혼질성을 설명하기 위해, 텍스트 문법과 서사 기호학이 제시하는 텍스트 구조에 대한 설명들도 일별하겠다. 이야기는 이야기 구성을 위한 구조적 차원과 이야기의 지향성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 설명, 논증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이야기 구성에 참여한다. 이들의 상호 관계를 기술해 내는 것은, 문장을 중심으로 한 문법 기술과는 다른 방향의 텍스트 문법을 구축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텍스트의 혼질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이 협력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0436)

** 중앙대학교

관계를 구성한다면, 기호학과 언어학의 새로운 차원의 관계 설정이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해 보겠다.

열쇠어 : 텍스트 문법, 서사 기호학, 텍스트의 혼질성, 텍스트 구조, 사건, 이야기

I. 서론

언어학의 임무 중 하나가 언어현상에 대한 철저한 기술이라면, 이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분석 도구들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된 분석 도구들은 발화체를 구성한 단위와 그 단위들 간의 관계를 포착해내는 데 유용해야 한다. 랑그 단계에서 분석적 시각은 층위에 따라 결정된다. 음운론부터 문장론에 이르는 전통적인 언어학 분야들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랑그 차원을 벗어나, 발화체^{énoncé}, 즉 텍스트나 담화의 차원에서는 랑그에서 적용되었던 기준과 규칙과는 다른 규범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벤베니스트E. Benveniste는 이 차원을 "다른 세계^{un autre univers}"¹⁾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차원이 다른 이 세계에 대해서 "텍스트들, 작품들의 초언어학적 분석^{analyse translinguistique des textes, des oeuvres}"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는 이 초언어학이 결국 "2세대 기호학^{une sémiologie de 'deuxième génération'}"²⁾으로 전개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벤베니스트는 새로운 방법론, 나아가 새로운 언어학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텍스트, 작품들에 적용될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상존하며 본고의 고민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텍스트 문법은 기존의 유력한 단위인 문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문장 문법의 확대가 텍스트 문법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론, 즉 텍스트 문법이 가지는 문장과의 관계도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 차원에서 텍스트의 유

1) 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Paris, Gallimard, 1966, pp.129~130.

2) 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Paris, Gallimard, 1974, p.66.

형types de texte을 사용하는 것은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이다. 이 텍스트 유형은 텍스트 연구에서 다양한 외연을 가지고 있다. 텍스트의 유형은 장르와의 연속선상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장-미셸 아당Jean-Michel Adam은 전통적 시퀀스séquence를 재해석하여, 이 텍스트 유형들을 시퀀스라는 명칭으로 분석에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의 혼질성hétérogénéité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서 이야기의 구조가 가지는 의미를 연구할 것이다. 우선 사건이 이야기가 되는 과정을 구조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건은 이야기라는 언어행위의 실질이다. 즉 이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사건이 분절되어 이야기하기narration라는 언어행위가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텍스트의 혼질성을 설명하기 위해, 텍스트 문법과 서사 기호학이 제시하는 텍스트 구조에 대한 설명들도 일별하겠다. 이야기는 이야기 구성을 위한 구조적 차원과 이야기의 지향성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 설명, 논증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이야기 구성에 참여한다. 이들의 상호 관계를 기술해 내는 것은, 문장을 중심으로 한 문법 기술과는 다른 방향의 텍스트 문법을 구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텍스트의 혼질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이 협력 관계를 구성한다면, 기호학과 언어학의 새로운 차원의 관계 설정이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해 보겠다.

II. 텍스트의 문법

1. 텍스트의 고유한 조직

담화분석 사전에 따르면³⁾ 텍스트 문법은 1960년대 말 독일에서, 주어진 한 언어의 정형화된 텍스트 구조의 무한한 총체를 "만들어내겠다"는

3) P. Charaudeau et al., *Dictionnaire d'analyse du discours*, Paris, Seuil, 2002, p.288.

기획을 가지고 생겨났다고 한다. 지금의 이론적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이러한 생성적 측면이 텍스트 분석에 활용된다. 텍스트 문법은 생성적 차원과 분석적 차원에서 이론을 전개할 기본 단위를 가져야 한다. 문장이 주목받게 된 것은 이 지점이다. 문장은 내부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텍스트 외부와의 관계에서 접점을 제공한다. 다음 콩베트B. Combettes의 언급⁴⁾을 보자.

문제는 언어학 연구에서 기능주의fonctionnalisme에 부여되는 위상과 중요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본문phrase de base"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확인할 때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이런 저런 상황에 들어가 있느냐로 인해 표지 혹은 무표지로서 통사적 도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주어진 언어에서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진행되는 전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자주 사용되는 것이며, 우리는 대부분의 통사적인 연구들이 <외부의> 요소들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의> 요소들만 고려하는 것, 균형을 이루는 지점과 불균형이 되는 지점을 고려하는 것이 그렇게 변화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문장이라는 단위는 분석의 도구로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이런 문장의 위상으로 인해, 이 문장이 가지는 단위로서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장을 구성하고, 문장을 연결하는 문장 규칙이 텍스트의 문법으로 직결될 수는 없다. 변형·생성 문법의 모델 상에서도 문장의 선적 확장이 텍스트가 된다는 것은 부정된다. 변형·생성 문법에 기반을 둔 텍스트 언어학이 고민한 것은 추상적인 알고리즘과 다시쓰기 규칙règles de réécriture들이었다. 이 사항들에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반 요소들과 변형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이 변형 규칙은 심층 구조들이, 표면에서 언어의 선적 형태로 드러나는 과정을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4) B. Combettes, « Typologie syntaxique et grammaire de texte », *Linx*, n°11, 1999, p.154.

변형 규칙들은 문장의 연결 규칙들을 도식화하거나, 문학 작품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외들을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인식은 계속 존재한다.⁵⁾

문장이 아닌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텍스트 문법은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을 이어 텍스트를 생산하는 이상적인 화자의 능력에 대한 개념을 확대한다. 문장 문법이 텍스트 문법의 한 하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 텍스트가 문장들의 수많은 혹은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는 점과 텍스트 의미가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들의 의미의 총합과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일은 중요하다.

장디유J.-F. Jeandillou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만약 텍스트가 문법 규칙의 단순한 적용 결과가 아니라면, 텍스트 문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⁶⁾ 문법을 찾는다는 것은 텍스트가 언어적 실체이며, 언어학의 대상이라는 점과 직결된다. 텍스트 고유의 문법이 랑그 차원의 기제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장디유의 다음 언급⁷⁾을 보자.

텍스트는 랑그의 기제들을 활용한다. 하지만 텍스트는 자신만의 논리를 위해서 그 기제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의미작용signification은 텍스트가 선택한 기호들의 기의와 독립적일 수는 없다. 즉 텍스트 구조화의 방식은 통사적인 배열들이나, 형태론적인 내적 일관성의 현상들과 무관할 수 없다.

위 발췌문을 보면, 텍스트는 자기만의 고유한 조직과 조직 논리를 가진다. 이 고유한 조직은 추상적 혹은 이론적 실체가 아니라, 실제 발화행위의 결과인 발화체들의 연속une suite d'énoncés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5) P. Charaudeau et al., *Op.cit.*, 2002, p.288.

6) J.-F. Jeandillou, *L'analyse textuelle*, Paris, Armand Collin, 2011, p.53.

7) *Ibid.*, p.53.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 콩베트의 언급에서처럼, 텍스트 연구는 내부적인 조직과 외적인 발화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한 쪽을 중심으로 연구한다고 해도, 다른 한 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언어학적 차원에서 텍스트 연구는 발화행위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을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⁸⁾

2. 구조분석의 위상과 텍스트의 혼질성

텍스트를 연구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혼질성(hétérogénéité)을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하려는 노력과 같다. 담화든, 분석적 시각과 상관없이, 텍스트든 발화체가 가진 혼질성은 그것들이 생산되면서 발생하는 성질이다. 랑그 차원 이상의 초언어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이론이든지 이 혼질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텍스트 내부조직을 연구하는 관점이나 발화상황을 연구하는 관점도 모두 이런 입장 정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차원에서 오피에-르뷔즈(Jacqueline Authier-Revuz)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이때, 텍스트의 혼질성은 ‘제시된 혼질성(hétérogénéité montrée)’과 ‘구성적 혼질성(hétérogénéité constitutive)’으로 나뉜다.

제시된 혼질성⁹⁾은 담화 상에 ‘타자에 대한 것(de l'autre)’이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오피에-르뷔즈는 그 예로 직접 화법, 따옴표, 자유간접화법, 가필이나 주석의 형태, 아이러니 등을 거론한다. 즉 이 용

8) 아당과 헤드만(Ute Heidman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신비평"에서 담화분석으로 이행하면서, 대성공을 거둔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행위의 과학으로 대체되었고, 텍스트의 자율성은 의미의 문맥성(contextualité)에 자리를 내주었다. 도미니크 망그노(Dominique Maingueneau)와 Ruth Amossy는 [...] 분야들 간의 대화와 이론적인 입장들을 강조하였다." J.-M. Adam et U. Heidmann, *Science du texte et analyse de discours: Enjeux d'une interdisciplinité*, Genève, Slatkine Erudition, 2005, p.7. 이들의 저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텍스트의 문제는 이제 상호분야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론의 출현이나 성공의 선후에 관계없이, 텍스트와 관련된 분야들의 이론적인 연속성과 협력에 대한 연구는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9) J. Authier-Revuz, "Hétérogénéité(s) énonciative(s)", *Langages*, n°73, 1984, p.98.

어는 텍스트 내에서 나타나는 혼질성에 대한 것이다. 구성적 혼질성에 대해, 오피에-르뷔즈¹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한편으로 상호담화interdiscours의 산물로서의 담화를 제시하는, 다른 지평, 즉 바흐친의 대화주의의 문제로 부터 유래한, 연구들에 근거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프로이트와 그의 연구를 다시 읽은 라캉에 의해서 가능해진 주체와 언어행위와 주체가 갖는 관계에 대한 연구에 근거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주체와 그의 담화가 가지는 구성적 혼질성이라고 명명할 것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위 두 혼질성은 텍스트를 둘러싼 언어학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텍스트의 외부와 내부, 그에 따른 언어학 분야들의 구분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구성적 혼질성은 텍스트 내부의 언어 표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 혼질성은 텍스트 외부의 주체 문제 혹은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관계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관련된다. 땡그노D. Maingueneau는 제시된 혼질성이 철저히 언어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의 언급¹¹⁾을 보자.

첫 번째 것[제시된 혼질성]은 오직 언어학의 도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혼질성으로 인해, 서로 분명히 교차하는 한정된 시퀀스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것[구성적 혼질성]은 반대로 가시적인 표지들을 제시하지 않는다. 즉 다른 이들의 말, 발화체는 텍스트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해 언어학적 접근에 의해서 이해가 될 수 없다.

10) *Ibid.*, p.99.

11) D. Maingueneau, *Genèses du discours*, Bruxelles, Mardaga, 1984, p.25.

하지만, 텍스트를 문장의 연속으로 분석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보면, 구조 분석은 텍스트의 혼질성을 해결하기 위해 분석 단위를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는다. 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텍스트 내부의 혼질성을 위한 구조 분석의 위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위 망그노의 언급을 살펴보면, 텍스트 외부에서의 접근이 언어학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벤베니스트의 ‘초언어학적 분석’의 이상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는 일이 이 지점에서 필요하다. 벤베니스트의 언어학은 분석해야 할 발화체에서 랑그 차원의 단위들과 그 단위들의 구성 규칙 이외에 현상학적 요소들의 가치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¹²⁾ 이때 주체의 문제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언어학의 연구대상으로 떠오른다. 바흐친의 대화주의나 상호 담화에 대한 논의 역시 언어행위 주체의 문제를 전제 혹은 중심에 두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의 외부와 내부를 언급하는 것은 단절적 사고가 아니라, 이 두 공간의 연속성을 밝히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상황을 텍스트 언어학의 입장에서 보고자 한다.¹³⁾

텍스트 언어학의 초기 구조주의자들은 점진적으로 자신의 대상이 가진 혼질성과 복잡성을 해결하려는 야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으로, 텍스트 문법이 만들어졌고, 다른 한편으로 ‘텍스트의 유형학typologies textuelles’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텍스트 언어학은 우선

12)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일찍부터 있었다. 슬라트카 드니Slatka Denis는 “단위 전체는 한정된 공시태 속에서 다른 단위들과의 갖는 관계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때 문제는 어떤 전체 내부에서 이 단위들 사이의 관계들이 정의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S. Denis, «Introduction à la grammaire de texte», *Actes de la session de linguistique de Bourg-Saint-Maurice 4-8 septembre 1977*, Paris, Publications du Conseil scientifique de la Sorbonne nouvelle-Paris III, 1977, pp.6-63. 여기서 ‘어떤 전체’란 랑그 차원에서는 자명한 것이지만, 초언어학적 분석의 차원에서는 규정하기 힘들다. 초언어학적 사실로 ‘텍스트’를 상정한다면, 단숨에 텍스트 내부와 외부의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은 복잡함complexité이 분석의 앞을 막아선다.

13) J.-M. Adam, *Linguistique textuelle: Des genres de discours aux textes*, Paris, Nathan, 1999, p.17.

가까운 두 분야들, 즉 담화 분석analyse de discours과 화용론pragmatique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리를 잡는다. 또한 텍스트 언어학은 ‘텍스트에 대한 설명’과 학교와 대학의 문체론적 분석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텍스트 분석analyse textuelle의 방법들과 절차들을 정의해야 한다.

위 발췌문은 텍스트 언어학과 텍스트 문법이 혼질성을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 외부와 어느 정도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담화 분석과 화용론이 혼질성의 한 부분을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와 대학과 같은 현장에서 텍스트를 문체론 차원에서 교육하고 있다. 이는 텍스트 언어학의 구조적 분석이 언어행위의 혼질성을 해결하려는 큰 그림의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조각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굳히게 만든다. 다음 푸코M. Foucault언급¹⁴⁾을 보자.

우리는 텍스트로부터 이러한 <전 담론적인prédiscursives> 경험들을 벗겨내고, 털어내기 위한 노력을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담론을 중립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다른 사물을 가리키는 기호로 만들거나, 멀리 떨어져 조용히 머물고 있는 것과 결합시키기 위해 담론이 가진 밀도를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담론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유지하고, 고유한 복잡성 속에서 담론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 담론에 앞서는 “사물들”의 수수께끼 같은 보물을 오직 담론에서만 그려지는 대상들의 규칙적 형성으로 치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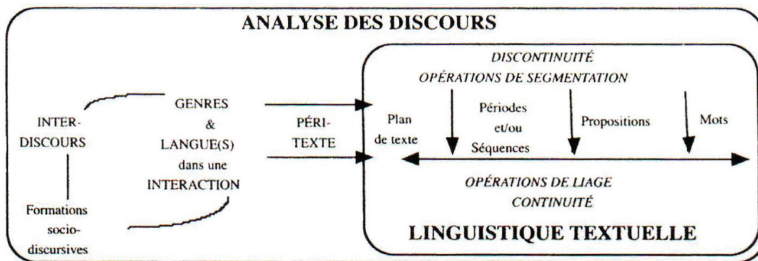
담론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텍스트로 보았을 때, 위 언급은 텍스트 연구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는 화용론의 대상으로서 상황과 관련해서 연구해야 온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제는 텍스트가 그 자체로서 무엇인가 말하기 위해서, 즉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된 발화체라는 점이다. 발화체는 ‘신뢰할 수 있는 것’

14) M. Foucault, *L'Archéologie du savoir*, Paris, Gallimard, 1969, pp.65-66

이어야 하며, ‘고유한 복잡성’ 즉 혼질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텍스트 언어학은 이 성질들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규칙적인 형성 *formation régulière*들을 자기 나름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구조분석의 위상은 화용론적 입장과 대립적인 관계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간의 관계가 연속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드니는 이에 대해, "텍스트 문법과 담화 분석 사이에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가?"¹⁵⁾라고 질문한다. 이에 대한 질문에 땡그노D. Maingueneau는 어떤 분야이든 상관없이 결국 언어행위 *langage*라는 동일한 실체를 다룬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분석법들이 가진 간극은 언어행위의 성질 자체에 기인한다. 언어행위는 한편으로 규칙들과 범주들의 시스템이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정신적 사실들이 집중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땡그노가 이 지점에서 강조한 것은, "자율적 시스템으로서의 언어행위와 상호행위의 결과로 초래된 힘으로서의 언어행위를 끊임없이 화해시키기 위한 노력"¹⁶⁾이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도식적으로 분명히 제시한 것은 아당 Jean-Michel Adam이다. 다음 도식을 보자.



[도식 1] 담화 분석과의 텍스트 언어학의 관계¹⁷⁾

15) S. Denis, *Op.cit.*, 1977, p.8.

16) D. Maingueneau, « Les analyses du discours en France », *Langages*, n°117, 1995, p.6.

17) 아당은 "담화 분석과 텍스트 언어학이 가지는 임무와 대상의 구분과 상보성을 동시에 상정하였으며, 텍스트 언어학을 담화수행에 대한 분석을 더 넓은 영역을 담당하는 하

이 도식은 담화 분석이 텍스트 언어학을 둘러싸고 있다. 담화 분석이 텍스트 언어학 보다 다루는 내용 역시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맵그노의 언급처럼, 두 분야의 임무와 대상의 차별성과 연속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아당은 이를 방향성orientation으로 설명하였다. 도식에서 텍스트 언어학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담화 분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과정들로 표시된다. 텍스트 언어학은 문장에서 중간단위가 개입하여 텍스트를 구조화하는 과정으로 도식에 나타났다. 담화 분석은 도식에서 무한한 형태의 발화체들이 장르나, 상호행위에서 사용된 언어들을 통해 분류되어 개별 텍스트로 구체화 되는 과정으로 묘사되었다. 결국 이 두 과정은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로 향한다. 이 두 분야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은 결국, 맵그노가 언어행위라고 언급한, 텍스트라는 실체이다. 여기서 구조분석의 위상은 결코 텍스트를 고립된 체계로 만드는 배열의 원칙이 아니다. 구조분석은 텍스트 구조화를 통해, 언어적 차원의 형태와 의미작용의 기제를 밝힌다. 이는 담화 분석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상황이 언어적 차원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밝히는 근거가 된다. 이때, 구조분석의 위상은 텍스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전체적 규모에서 ‘역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이 역할은, 위 아당의 도식이 보여주듯이, 다른 분야들과의 상보적 관계를 통해 정해진다.

III. 텍스트로서의 사건

1. 텍스트 구성mise en texte과 서술적 이해 compréhension narrative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언어행위를 통해 이야기가 된다. 다시 말해서

위 분야로 정의한다"고 위 도식을 설명하고 있다. J.-M. Adam, *La Linguistique textuelle*, Paris, Armand Colin, 2011, p.31.

이야기는 발화체로서 언어행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사건은 텍스트인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는 커다란 순환의 고리에 진입하게 된다. 여기서 벤베니스트의 담화와 이야기의 구분은 이 논의에서 논점들을 제공한다. 다음 리콥르의 언급을 보자.

주네트는 벤베니스트의 담화와 이야기의 구분을 일단 받아들인다. 하지만 곧 그 구분을 명백하게 거부한다. 모든 이야기 속에는 담화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른바 서정적인 노래, 고백, 또는 자서전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역시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화자가 텍스트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해도 그 역시 발화행위의 사실이다. 이 점에서 발화행위는 이야기와 대립되는 한정된 의미의 담화라기보다는 [...] 넓은 의미에서 담화의 실현행위에서 파생한다.¹⁸⁾

리콥르의 위와 같은 말은 벤베니스트의 담화와 이야기의 대립적 구분보다는 그것이 담화 혹은 텍스트이든 간에, 발화행위라는 공통된 시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주네트 역시 벤베니스트의 이분법을 따랐지만, 매우 완화된 방식으로 이론을 전개한다.¹⁹⁾ 아당은 이야기 텍스트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이야기의 능력un pouvoir DU récit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한 능력은 추상적이고, 일정한 상황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 이야기들의 능력le pouvoir DES récits은 정해진 발화자-내레이터énonciateur-

18) P. Ricoeur, *Temps et récit II : La configuration dans la récit de fiction*, Paris, Seuil, 1984, p.122.

19) *Ibid.*, p.122. 언어행위의 실현은 상호행위interaction의 성사 여부에 따라 규정되기도 한다. 텍스트를 통한 상호행위는 구어를 전제로 한 담화의 상호행위와는 기제가 다르다. 하지만 누군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생산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바이이Charles Bally는 매우 넓은 뜻으로 이 언어행위를 정의한다. "각 언어상대자가 행위를 위해 다루는 무기이며, 이 무기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C. Bally, *Le Langage et la vie*, Droz, Genève, 1965, p.21.

narrateur déterminé가 주어진 상황에서 랑그를 통해 뜻있는 말을 만드는 일-텍스트를 구성하는 일로부터 유래한다. 이야기 담화의 실제 수사학 *rhétorique pratique*은 대화 상황(수용자-대화상대자 *récepteur-destinataire*가 실재적 혹은 잠재적이든, 현존하든 혹은 부재하든)과 대화 형태를 포함하는 능동적인 이해의 과정에 연결되어 있다.

즉 텍스트인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는 발화자와 대화상대자, 상황, 이들 간의 능동적인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일상의 대화는 대화자들이 대면하고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의 이해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 작용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야기라는 텍스트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이야기는 실제적인 수사학을 사용한다. 이 수사학을 사용하는 목적은 "있을 수 있는 저항들을 잠재우고, 집중을 고조시키고, 유지하도록 하며, 호감을 끌어내거나, 반감을 무장 해제 시키는 데"²⁰⁾ 있다.

리콥르는 이야기의 언어적 구성이 발화자의 이해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상의 사건은 언어행위를 통해 재현된다. 일어난 사건이 온전히 언어행위를 통해서 이야기가 될 수는 없다. 인간의 언어행위는 사건을 편집하여 이야기를 만든다. 리콥르가 말한 서술적 이해 *compréhension narrative*와 실천적 이해 *compréhension pratique*는 인간이 가진 이 편집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리콥르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상호 의미 작용 관계 *relation d’intersignification*’에 주목한다. 이야기의 구성요소들인 부분들은 "'무엇 *quoi*', '왜 *pourquoi*', '누구 *qui*', '어떻게 *comment*', '누구와 함께 *avec*', '누구에게 *contre qui*'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실제 혹은 허구의 사건에서 전체를 구성하는 이 부분들을 정하고, 전체의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제어하는 것 *maîtriser*이 바로 실천적 이해이다.²¹⁾ 부분들은 상호

20) P. Bourdieu, "Le fétichisme de la langue", avec L. Boltanski, *Actes de la recherche*, n°4, 1975, p.23.

의미 작용 관계를 통해 이른바 ‘개념망réseau conceptuel’을 구성하고, 리코르는 직접적으로 이 개념망을 행동의 계열체적 질서ordre paradigmatique로 명명한다.²²⁾

이야기의 부분적인 질서를 규정할 수 있는 실천적 이해가 정의되고 나면, 다음으로 서술적 이해가 규정되어야 한다. 리코르는 지향성을 가지는 행동의 영역과 단순한 움직임을 표시하는 물리적 운동의 영역을 구별하는 개념망, 즉 실천적 이해를 줄거리 구성에 의해 생겨나는 이해 가능성이 가지는 일차적 근거라고 지적했다.²³⁾ 서술적 이해는 실천적 이해와 달리 정태적이지 않다. "줄거리를 구성하는 것composer, 이미 그것은 우연적인 것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특이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 삼화적인 것에서 필연적인 것이나 사실임직한 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faire surgir이다."²⁴⁾ 우리는 여기서 서술적 이해가 ‘구성하는 것’ 그리고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역동적인 작업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서술적 이해는 모든 종류의 정태적 구조structures statiques, 비연대기적 패러다임paradigmes achroniques,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불변항invariants intemporels에 우선한다.²⁵⁾

위와 같이 서술적 이해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실천적 이해와 계열체적 질서 관계를 서술적 이해와 통합체적 질서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 실천적 이해가 선행하는 작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여기에 서술적 이해력에 해당하는 통합체적 질서가 적용되면, 이야기는 온전한 규모를 가지게 된다. 다음 리코르의 언급²⁶⁾을 보자.

21) P. Ricoeur, *Temps et récit I*, Paris, Seuil, 1983, p.89.

22) *Ibid.*, p.90.

23) *Ibid.*, p.88.

24) *Ibid.*, p.70.

25) *Ibid.*, p.58.

26) *Ibid.*, pp.90-91. 리코르는 서술적 이해력이 결국 줄거리와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다. P. Ricoeur, *Op.cit.*, 1984, p.22.

행동의 계열체적 질서에서 이야기의 통합체적 질서로 옮겨가면서, 행동 의미론의 용어들은 통합성과 현실성을 얻는다. 현실성이란 계열체적 질서에서는 잠재적 의미 작용,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사용될 가능성만 가졌던 용어들이, 줄거리가 행동 주체들과 그 행동, 그리고 그 시련에 부여하는 일련의 연쇄 덕분에 실제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성이란 행동 주체, 동기, 상황과 같은 이질적 용어들이 실제의 시간적 총체성 속에서 모순을 이루지 않고 서로 결합하여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서술적 이해는 리쾨르에게 줄거리 구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며, 줄거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과 규칙들을 제어하는 정신 작용²⁷⁾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작용은 이야기의 구성뿐 아니라, 이야기를 읽을 때도 필요하다.

사건이 이야기로 편집되면서, 실천적 이해와 서술적 이해는 줄거리 구성의 씨줄과 날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이론에서도 나타난다. 프로프Vladimir Propp의 ‘기능들fonctions’이 그렇고, 그레마스Algirdas-Julien Greimas의 행위자 모델modèle actantiel과 시련들epreuves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고려는 언어학에서, 특히 의미론에서 시작하여, 서사기호학sémiotique narrative에 까지 이르러 중요한 한 페이지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분야는 의미적 추상화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텍스트라는 발화체로 구성된 언어적 실체를 다루는 이론적 과정에서는 멀

27) 리쾨르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지금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가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통합체적 질서를 지배하는 규칙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술적 이해력은 행동의 의미론을 구성하는 개념망과의 친밀성을 전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이야기의 통사적 질서를 지배하는 구성 규칙들과의 친밀성도 요구한다."(P. Ricoeur, *Op.cit.*, 1983, p.90.) 이 언급에서 보면, 서술적 이해력은 통합적 질서 이상의 개념이다. 서술적 이해력은 실천적 이해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면서, 통사적 질서를 지배하는 규칙에도 관여한다. 리쾨르의 언급을 보면, 서술적 이해력이 실천적 이해력과 통사적 규칙을 매개하는지, 아니면, 그 둘을 모두 제어하는지, 그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리쾨르가 말하는 서술적 이해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줄거리 구성에 대한 이해 이상으로 이야기의 구성과 전달 기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 따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어졌다. 다음 장디유의 언급은 그런 측면에서 텍스트 언어학이 언어의 물질적 실체를 다루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텍스트는 추상적인 모델로서 인식될 수 있지만, 그 물질적인 표명으로 인해, 발화체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형태를 갖춘concrets 연속된 발화체들은 기저의 텍스트 도식이 눈에 보이는 공간 위에서 투영된 결과이다. 발화체의 연속은 문장의 성질이 있는 언어적 분절들 segments linguistiques의 인과관계가 있는 연쇄concaténation로 나타난다.²⁸⁾

위 언급에서 텍스트의 물질적 실체가 발화체들의 연속일 때, 이 연속은 문장들의 연속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추상적인 의미 단위를 통해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기보다 텍스트의 물질적 실체를 다룬다는 것은, 문장의 연속을 따라가며 문법적 규칙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랑그 이상의 초언어적 차원에서, 분석은 문장이 구성하는 단위들을 발견하고, 이 단위들을 통해 텍스트의 구조를 보다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야기 텍스트와 이야기의 분절

루시앙 달렌바흐Lucien Dällenbach는 문학 속에서 인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위들이 일반적으로 격자 구조mise en abîme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다음 그의 언급은 텍스트를 물질적 실체로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독자들이 [작품을] 즉각적이고, 전체적으로 접했을 때, 진행되어가고 불안정한 독서를 안정화하게 된다. 이 격자 구조를 통해 축소된 모형maquette이 생길 수 있다. 이 모형은 기표와 기의 차원에서, 자신의 모델의 복잡함을

28) J.-F. Jeandillou, *Op.cit.*, 2011, p.126.

단순화한다. 그리고 이 모형은 독자에게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면서, 독자가 텍스트를 제어하고, 부분으로 분절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모형을 통해] 이야기 가운데에서, 독자는 모호한 요소들의 정체를 확인하고, 분명히 밝혀낼 수 있다. 그리고 독자들 관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들을 찾아내고, 다른 부차적인 것들은 멀리한다. 다시 말해서, 독자는 이 모형을 선택과 구조화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다.²⁹⁾

텍스트를 구성하는 이 격자 구조의 부분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분석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석 단위는 텍스트라는 물질적 실체, 즉 발화체를 분절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포착된다. 발췌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격자 구조와 같은 텍스트의 구조화는 텍스트의 가독성 *lisibilité*, 소통적 언어행위의 성공, 이야기의 수용을 보장하면서, 텍스트의 물질적 실체성 *matérialité*을 부각시킨다. 이 구조화는 텍스트를 스스로의 안에 가두어 놓게 만든다. 즉 상황을 배제한 언어적 힘을 발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지시적 내용은 그것이 가진 실재 효과 *effet de réel*의 힘을 잃어버리면, 우선 텍스트의 효과 *effet de texte*를 표출한다."³⁰⁾

사건들이 이야기들이 되면서, 이 이야기의 규칙성에 대한 연구는 수많은 이론들을 낳았다. 그리고 텍스트 언어학에서도 앞서 장디유의 발췌문에서 볼 수 있듯이 ‘텍스트의 도식을 공간 위에서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 다만 텍스트 언어학의 연구들이 이야기 연구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자. 텍스트 언어학은 자신의 고유한 방법론으로 모든 텍스트적 현상을 언어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텍스트 문법에서 문장을 분석의 주요 단위로, 문장 문법이라는 규칙을 통해 이 단위들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텍스트의 구조를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문장과 문장 규칙이라는 잘 다듬어진 단위와 규칙을 이 분야에서 선택

29) L. Dällenbach, "Réflexivité et lecture", *Revue des sciences humaines*, n°177, 1980, pp.32~33.

30) J.-M. Adam, *Le texte narratif*, Paris, Nathan, 1985, p.10.

한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매우 적절하고, 과학적인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장과 문장 규칙은 랑그 차원에서 까지만 유효할 뿐이다. 다음 장디유의 언급³¹⁾은 논의를 진행하는 데 길라잡이가 되어 줄 수 있다.

이렇게 [구조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일 *mise à plat*이 그 자체로 텍스트 밑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조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상세한 제시는 다수의 기본문들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공통된 역할을 하면서, 동일한 블록을 형성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방식을 설명하지 않는다. (미시문 *micro-propositions*이라고 불리는) 어떤 분절체 *segments*들을 그 보다 다소 복잡한 구성단위 *module*(거시문 *macro-propositions*) 한 가운데에서 정리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계층화 작용을 통한 층위 밝혀진다. 이 층위는 말의 표면에서 별개로, 더 이상 단순한 선적인 연결 *connexion* 전체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 *articulation*의 모습을 드러내 줄 것이다.

짧은 이야기를 분석해 보자. 다음은 *Le Corbeau et le Renard*라는 우화³²⁾이다.

1. Maître Corbeau, sur un arbre perché,
2. Tenait en son bec un fromage.

31) J.-F. Jeandillou, *Op.cit.*, 2011, pp.126~127.

32) www.iletaitunehistoire.com에서 발췌. 장디유의 분석 용어를 빌어오기로 한다. *pn*은 *micro-proposition narrative*, *Pn*은 *macro-proposition narrative*로 구분한다. 위 우화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까마귀 선생은 높은 나무 위에서 큰 부리로 치즈 한 조각을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우 선생은 매혹적인 냄새에 끌려 까마귀 선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까마귀씨, 당신은 매우 멋지군요. 너무 잘 생기신 것 같아요. 진실로, 당신의 노래 소리는 당신의 깃털만큼 아름답군요. 당신은 이 숲속의 진정한 주인 피닉스이시군요. 이 말에 까마귀는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과시하려고 큰 부리를 벌려서, 물고 있던 치즈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우는 그 치즈를 닦아채며, 말했어요. 선생님, 아시길 바래요. 모든 아침꾼들은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아마 이 치즈가 그 교훈의 대가일 거예요. 부끄럽고 당황한 까마귀는 잠시 후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3. Maître Renard, par l'odeur alléché,
4. Lui tint à peu près ce langage :
5. Et bonjour, Monsieur du Corbeau.
6. Que vous êtes joli ! que vous me semblez beau !
7. Sans mentir, si votre ramage
8. Se rapporte à votre plumage,
9. Vous êtes le Phénix des hôtes de ces bois.
10. À ces mots, le Corbeau ne se sent pas de joie ;
11. Et pour montrer sa belle voix,
12. Il ouvre un large bec, laisse tomber sa proie.
13. Le Renard s'en saisit, et dit : Mon bon Monsieur,
14. Apprenez que tout flatteur
15. Vit aux dépens de celui qui l'écoute.
16. Cette leçon vaut bien un fromage, sans doute.
17. Le Corbeau honteux et confus
18. Jura, mais un peu tard, qu'on ne l'y prendrait plus.

첫 두 행은 ‘까마귀 선생’라는 인물, ‘높은 나무 위에서’라는 행위의 장소, ‘큰 부리로 치즈 한 조각을 물고 있었다’라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대상까지 소개하는 부분이 하나의 묶음(Pn1)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정된 상황은 ‘여우’의 등장으로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Pn2는 안정된 상황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인물의 등장과 행위라는 측면에서 3행부터 9행까지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10행에서 12행까지 기술된 까마귀의 반응은 Pn3를 형성한다. Pn4는 계략의 성공과 여우의 충고를 담고 있는 13-15행까지 이다. 앞 Pn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16행은 Pn5이고, 마지막 까마귀의 반응을 담은 두 행은 Pn6이다.

위 Pn들은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위 우화에서 Pn2, Pn3, Pn4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세 Pn들이 포함하고 있는 미시 구조들은 서로 다른 모양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야기

를 구성하는 질서 속에서 상위 구조를 구성하는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구성한 Pn들은 시간의 진행과 인물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는 단계들에 알맞게 배치되어 있다. 또, Pn1과 Pn5는 한 문장이지만, 거시 구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이야기를 이루는 동일한 문장이라는 요소가 유사한 크기의 상위계층을 이루어 전체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Pn1, Pn6, Pn5는 Pn2~Pn4와 역할이 다르다. Pn2~Pn4가 이야기의 전개를 보여준다면, Pn1, Pn6, Pn5은 상태나 평가 등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텍스트의 혼질성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모양과 크기, 내용이 각기 다른 텍스트의 부분들, 특히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기본문들은 텍스트의 구조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형태나 의미적 고유성을 유지할 수 없다. 만약 이들을 정리하는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기본문들의 선적인 연결들은 텍스트의 혼질성을 여과 없이 보여줄 뿐이다. 장디유는 이 혼질성이 기본문들 보다 상위 단계의 단위들인 거시문들,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거시구조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 기본문들의 속성들은 보다 큰 단위 *unité de grandeur*, 상위 열에 속하는 단위 *unité de rang supérieur*에 연결되면서 ‘흐려져버리기 *s'estompe*’ 때문이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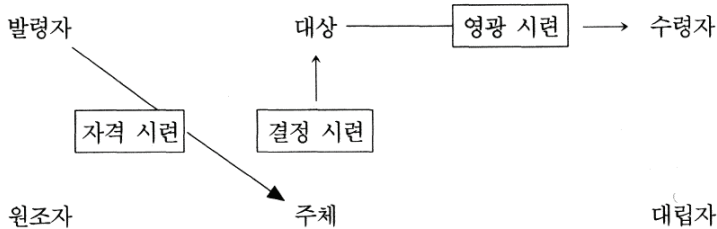
사건을 바탕으로 기술된 이야기 분석의 조건은 분명해진 것 같다. 우선 기본문들로만 이야기 구조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기본 전제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본문들을 추상화하여 상위 단계로 이어갈 기준들을 찾아야 한다. 다음에서는 이 기준들과 이 기준들이 구조화 되는 방식을 살펴보겠다.

33) J.-F. Jeandillou, *Op.cit.*, 2011, p.127.

3. 기의의 언어학에서 서사 기호학으로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거대한 조직체이며 알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바를 위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텍스트 언어학을 보면 이야기라는 텍스트는 수많은 언어적 실체를 담고 있는 매우 복잡하고 혼질적인 실질로 다가선다. 실질이 아닌 형식으로서, 그리고 철저성을 근간에 두고, 텍스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던 대로 기본문들이 어떻게 이야기라는 전체로 조직화 되어 가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레마스Algirdas-Julien Greimas의 서사 기호학은 프로프Vladimir Propp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구조를 재정립한다. 프로프가 31가지 기능을 통해서 서사 구조를 제시하려고 했다면, 그레마스는 이 기능들을 재해석하여, 세 가지 시련trois épreuves³⁴⁾과 행동자 모델modèle actantiel을 통해 서사의 표면 구조를 정리했다. 여기서 세 가지 시련은 최초의 상황을 최후의 상황으로 변형하는 통사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행동자 모델은 이야기의 계열체적 체계를 보여준다. 박인철은 그레마스가 제시한 세 가지 시련과 행동자 모델을 통합하여 이야기의 표면 구조를 다음과 같이 도식으로 제시한다.



[도식 2] 이야기의 표면 구조³⁵⁾

34) 자격시련épreuve qualifiante, 결정시련épreuve décisive, 영광시련épreuve glorifiante

35) 박인철, 『파리학과파의 기호학』, 서울, 민음사, 2003, p.157.

위의 도식에서 보듯이, 언어학자이기도 한 그레마스는 이야기를 통합 관계와 연상관계로 이루어진 구조체로 파악하고자 했다.³⁶⁾ 주목할 점은, 이야기의 표면 구조를 연구 하면서, 그레마스의 이론은 기의에 대한 언어학 연구에서 서사 이론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레마스는 기의, 즉 의소들을 음소 연구의 모델을 통해 세밀하게 분류·분석한다. 그가 제시한 의소들의 대립의 짝인 의미의 기본구조 *structure élémentaire de la signification*는 다시 프로프의 기능들을 분류하는 데 활용된다. 의소들의 대립 구조가 기능들의 대립구조의 모델이 되면서³⁷⁾ 기의의 언어학은 이제 말 그대로 서사기호학³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던 언어적 실체, 즉 발화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언어학과 앞서 서사 기호학으로 추상화된 이야기의 이론 간의 간격은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좁힐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이의 접점은 이론 자체 혹은 이론을 구성하는 단위들 사이의 유사성이나 상동성으로는 찾을 수 없을 것이

36) 박인철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레마스는 구성 모델과 변형 모델을 통해 이야기는 시간적인 성격을 띤 시퀀스들과 비시간적인 성격을 띤 시퀀스들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야기 전체를 최초의 주어진 상황-프로프에게 이것은 '손해'나 '결핍'에 해당한다. 이 세가지 시련으로 이루어진 변형 과정을 거쳐 그 반대의 상황('손해의 복구'나 '결핍의 해소')으로 역전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글, p.153.

37) 박인철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레마스는 이러한 단위들을 *s vs non s*라는 의소 사이의 대립으로 이루어진 '의미의 기본구조로 파악한다. 왜냐하면 예컨대 앞에 나온 '금지'와 '금지의 위반'은 '계약의 파기'라는 공통축 위에서 서로 변별되는 이접관계(*disjonction*)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레마스는 이러한 방법으로 프로프의 31개의 기능들을 서로 대립되는 20개의 쌍으로 묶었다. 이처럼 의미의 기본 구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내용의 비시간적 조직'을 그레마스는 '구성모델(*modèle constitutionnel*)'이라고 부른다." 같은 글, p.150.

38) 쿠르테즈 *Joseph Courtés*의 저서 *La sémiotique narrative et discursive*(1993)의 서문에서 그레마스는 프로프 모델의 가치가 "기담 *conte merveilleux*의 개별적 특수성을 전체적으로 초월한 데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초월이야말로 '서사 기호학 *la sémiotique narrative*'의 전개를 '그 시작 *dès ses débuts*'부터 특징짓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의 언급은 서사 기호학이 자율적인 한 분야로 정립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과정들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서사 기호학과 언어학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A.-J. Greimas, "Préface", in *La sémiotique narrative et discursive*, Joseph Courtés, Paris, Hachette, 1993, p.10.

다. 만약 문장을 넘어선 텍스트 구성단위에 대해 연구하는 데 서사 기호학의 이론들을 도입한다면 언어학과 기호학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IV. 이야기의 혼질성과 구조화

1. 이야기의 혼질성

우리는 위에서 텍스트 언어학과 서사 기호학의 간극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 간극은 양쪽 모두에게 원인이 있다. 텍스트 언어학이 겪는 한계는 분명하다. 다음 필리올리 Antoine Culioli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문어 텍스트로 인해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확장의 방식을 통해서든 문장에서 발화체 énoncé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필연적인 귀결에서, 이론적 단절에 관계된 것이다."³⁹⁾ 또 한편으로 텍스트 언어학에서 언급하는 장르나 텍스트의 유형은 개별 문장들을 어떻게 다룰지는 자세히 보여주지 못한다. 다음 라스티에 François Rastier의 말은 언어학이 처한 텍스트 연구의 난점을 잘 보여준다.

요약하면, 각기 형태통사론과 텍스트에 중점을 두는 두 가지 언어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기술 description의 두 분야는 분명히 서로를 통해 완전해진다. 텍스트는 언어학의 경험적인 대상이다. 때문에, 문장들, 나아가 단어들을 고립시키는 것은 보기보다 복잡한 방법론적 절차들이 필요하다.⁴⁰⁾

라스티에는 이어 의미론적 접근에 대한 문제점도 역시 지적하고 있다. 일정한 의미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론적 차원에서 생성된 단위들은 다양

39) A. Culioli, *Opération de détermination*, Paris, Université Paris VII, 1984, p.10.

40) F. Rastier, *Arts et sciences du texte*, Paris, PUF, 2001, p.31.

한 차원과 관계를 맺는다. 어떤 단위들은 어휘 분류와 일치하며, 어휘에 따른 서열을 따르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단위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어휘화가 필요하다. 새롭게 어휘화 된 단위들은 다른 분석에서 반드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후 "비어있을 수 있다. 종합하면, 이들의 "추상화의 정도"가 동일하지 못하다."⁴¹⁾

결국 분석에서는 단위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문장이 기본 분석 단위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앞서 계속해서 언급한 바대로 회의적이다. 또한 의미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분절했을 때, 여러 이론적 입장에 따라 분석 단위가 다르다. 그리고 한 단위가 담당하는 의미의 영역도 일정하지 않다. 장르는 텍스트 분류에 있어서, 텍스트의 성질 자체 따르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수들을 개입시킨다. 텍스트 유형types de texte 역시 주요한 기준들을 제시하지 못한다. 아당은 텍스트의 유형을 "적정한 도구라기보다는 인식론적 장애물"⁴²⁾이라고 단정한다. 이는 지나치게 텍스트에 대한 교육학적 입장을 비판한 것이다. 학교 교육은 텍스트 구조에 대한 도식적 교육을 강조해왔고, 이는 대상으로서 텍스트가 갖는 근본적인 성질, 즉 혼질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한계들은 텍스트 분석에 새로운 출구를 찾게 만든다. 텍스트의 과학은 결코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는다. 텍스트의 단위들은 정확한 측정이나 산술적 계산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⁴³⁾ 이 단위들은 오랜 언어 행위 혹은 언어 사용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즉 텍스트의 단위는 경험의 과학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 클레베르George Kleiber는 이에 대해서 "범주화와 범주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경험에서 조직된 기본적인 요소들"⁴⁴⁾이라고 언급한 바

41) *Ibid.*, p.281.

42) J.-M. Adam, *Genres de récits: Narrativité et généricité des textes*, Louvain-la-Neuve, Harmattan-Academia, 2011, p.21.

43) 마무디앙Mortéza Mahmoudian과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경험적 과학성이 언어학에서는 문장을 한계로 그 이상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M. Mahmoudian, *La Linguistique*, Paris, Seghers, 1989, pp.221-222.

있다. 아당은 경험에서 온 범주들이 없다면, 우리가 접하는 발화체들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다양성, 즉 통사론적 규칙성이 해결할 수 없는 매우 혼돈스러운 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⁴⁵⁾ 그런 점에서 다음 아당의 분석 대상으로서의 텍스트에 대한 규정⁴⁶⁾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텍스트"의 단위는 너무나 복잡하고, 매우 혼질적이어서, 적어도 복잡함이 높은 단계에서는 언어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체계화할 수 있는 규칙성을 제시하기 어렵다.

2. 이야기의 구조화

이 경험적인 이야기 구조에 대한 연구는 한편으로는 이야기의 구조화, 나아가 텍스트 언어학 혹은 기호학이 많은 이론적 엄밀성에 대한 지적을 받게 만든다. 이에 따라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경험의 과학이 이 분야들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기존의 '경험들'이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연역적 기준을 통해 기존의 신뢰할 만한 이론들을 새롭게 조합하는 방식이 이야기 이론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방식을 통해, 우리는 텍스트의 혼질성에 일정한 규칙성을 부여할 한 도구를 구체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당의 이론은 그런 점에 주목할 만하며, 자신의 이론이 이 지점에서 왜 중요한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⁴⁷⁾

그래서, 나는 소위 "이야기^{récit}" 그리고, 여기에 더해, "기술^{description}", "논증^{argumentation}", "설명^{explication}", "대화^{dialogue}"라고 불리는 규칙성을

44) G. Kleiber, *La Sémantique du prototype*, Paris, P.U.F., 1990, p.13.

45) J.-M. Adam, *Les textes: types et prototypes*, Paris, Armand Colin, 2009, p.7.

46) J.-M. Adam, *Op.cit.*, 2011, p.21.

47) *Ibid.*, p.21.

가진 사실들을 구성적 복잡성에서 높지 않은 처리 단계에 위치시키자고 제안하였다. 즉 이것이 내가 시퀀스적séquentiel인 것이라고 명명하였던 언어학적 단위들의 초문장적인transphrastique 배열의 단계를 말한다. 내가 근간으로 삼은 텍스트의 구성적 구조 모델modèle de la structure compositionnelle des textes은 "텍스트의 유형학"에 대한 사고와는 극단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이 모델은 텍스트성과 담화성의 조직 단계들과 처리 단계들의 이론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에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조직 단계들과 처리 단계들을 구분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만의 조직 방식으로 환원할 수 없는 대상의 복잡한 성격, 즉 다양한 구성 요소로 연구를 나누어야만 하는, 심히 혼질적인 대상 그러나 동시에 일관성이 있는cohérent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아당은 이야기를 ‘시퀀스적인 것’으로 재구성하면서 기존의 이야기 이론들을 일별한다. 다음 브레몽Claude Bremond의 언급은 이야기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야기를 소통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메시지가 가지는 기본적인 조건들은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주체(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상관 없이)라도 시간 t 에서 $t+n$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t 순간의 술어prédicat를 특징지을 수 있을 $t+n$ 순간에 술어들이 다르게 변한 모습이 언급되어야 한다.⁴⁸⁾

위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야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체, 시간성, 변형된 술어들이 존재해야 한다. 브레몽은 여기에 "단위를 이루는 단일한 행동이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이야기가 "인간적인 계획과 관계되어야만 한다"⁴⁹⁾는 점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였다. 브레몽이 덧붙인 이

48) C. Brémond, Logique du récit, Paris, Seuil, 1973, pp.99-100. 술어의 변형에 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대략 그 한계를 정하자면, 한 비극 작품의 크기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또는 행복에서 불행으로 뒤바뀌게끔 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개연성이나 필연성에 따라 연결하는 데 필요한 길이라고 하면 충분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김한식 역, 펍클 클래식 코리아, 2010, 177쪽.

두 가지 사실은 이야기가 단순한 언술들의 시간적 나열이 아니라, 어떤 지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향성은 이야기의 전개과정으로 구체화 되며, 예를 들어 서사 기호학에서는 시련⁴⁹⁾épreuves이라고 할 수 있다. 박인철은 이에 대해, "주체가 겪는 일련의 시련을, 비록 보편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일반적으로 설화적 담화를 조직하는 원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인간의 삶과 활동의 행로를 참되게 표상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⁵⁰⁾ 이 지향성은 허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하는 개연성⁵¹⁾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때 개연성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일종의 질서와 논리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또 지적할 점은 이 지향성을 통해서 텍스트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행위의 혼질성은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구성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 쿠르테즈의 언급⁵²⁾을 보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나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다. 풍경, 새로운 마을, 화가의 그림들은, 누군가 그것들을 보는 사람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것들의 의미효과가 분명하게 정확하여 어떤 지향성과 관계된 것은 아니더라도 말이다.

49) C. Brémont, "La logique des possibles narratifs", *Communications* n°8, Paris, Seuil, 1966, p.62.

50) 박인철, 앞의 글, 2003, 157쪽.

51) 이는 위에서 브레몽이 언급한 '통합'과 관련이 있다. 이를 김휘택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이야기의 줄거리가 이해 가능한 것이 되려면 '이야기가 갖는 시간적 통일성'이 이질적인 사건들에 이야기의 논리인 일종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전제가 돼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신의 긴장을 통해 시간을 '화음을 이루는 불협화음 discordance concordante'으로 설명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개연성을 "불협화음을 내포한 화음 concordance discordante"¹²⁾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휘택, 「이야기 시퀀스의 논리에 대하여」, 『프랑스 문화예술연구』 56집, 2016, 360쪽.

52) J. Courtés, *Analyse sémiotique du discours: De l'énoncé à l'énonciation*, Paris, Hachette, 1991, p.11.

위 언급은 한편으로 풍경, 새로운 마을, 화가의 그림이 지향성과 관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향성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룬다면, 위 사항들은 지향성의 주변에서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야기의 주요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언급한 이야기의 시퀀스적 연구는 이 지점에서 그 장점을 보여준다. 이야기를 시퀀스로 재구성하게 했을 때, 이야기가 가진 담화로서의 풍부함에 대한 기술을 훼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훼손의 가능성은 이야기라고 판단되는 모든 발화체를, 텍스트의 혼질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다루었을 때만 발생한다. 따라서 이야기의 시퀀스에 대한 논의는 이제 이야기가 텍스트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한다.

3. 이야기 시퀀스와 텍스트 문법의 구체화

다음 발췌문을 보자. 다음 발췌문은 김훈의 『칼의 노래』(2012) 중 일부분이다.

멀리서 보면, 백성들의 나루터는 어린애 팔목처럼 가늘게 강물 쪽으로 뻗어나간 돌무더기 였는데 나루터마다 돌터미들은 허물어져 있었다. 지난가을에 지붕을 새로 얹지 못한 백성의 초가지붕들이 시커멓게 썩어 있었다. 강가 묵은 밭에서 겨울난 잡초가 스러졌고 그 밑에서 새 풀이 돋아나고 있었다. 백성들의 집 사립문짝과 울타리가 허물어졌고 논두렁길들이 군데군데 끊어져 있었다. 사내들이 모두 죽거나 끌려가서 노인과 부녀들만이 지키고 있는 마을이었다. 새카만 염소들이 봄볕 속에서 흘레를 붙었고, 늙은 농부들이 땅에 허리를 굽히고 흙을 일구었다. 농부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군선을 보자 기겁을 해서 연장을 버리고 집안으로 숨어들었다.

위 발췌문은 이순신이 영산강 줄기의 내륙 쪽을 돌아보는 장면 중 일

부를 옮긴 것이다. 이후 이순신과 부하들이 상륙하여 마을 아낙에게 부탁하여 식사를 지어 먹는 사건이 이어진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당시 마을의 모습이나 백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독자에게 임진왜란의 참상을 보여주면서도, 민초들의 곳곳한 생명력을 깨닫게 해 준다. 이 소설은 임진왜란의 후반부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은 전투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기 보다는 이순신이 보는 풍경, 일이 벌어지는 광경, 심리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이순신의 모든 행동에 개연성을 제공한다.

위 장면은 마을을 원근법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나루터의 모습, 그리고 그 나루터에서 보이는 마을의 모습으로 진행하고, 백성들의 집과 그 주변의 모습들이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의 성격을 ‘노인과 부녀들만 지키고 있는’으로 규정하였다. 다시 시선은 논밭으로 향한다.⁵³⁾ 기술과 이야기의 관계는 텍스트의 혼질성을 이야기 하는데 매우 기초적인 문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다음 아당의 언급⁵⁴⁾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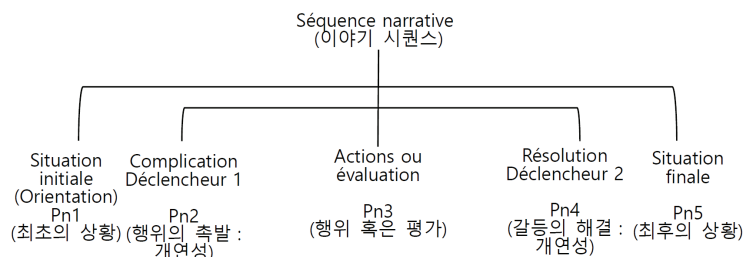
최소한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고도, 우리는 사물들, 인물들, 동물들 혹은 어떤 공간에 대해, 묘사 하거나 논의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이야기들은 최소한의 장식이나 행위자들이 없이 성립될 수 없다. 사건들(이야기하기narration의 시간적 배열)은 장소(공간의 배열)를 필요로 한다. 기술이 (공간의 배열에 의해 지배되는)지시적 기능 작용을 확실히 담당 해주기 때문에, 기술의 기능은 (시간의 배열에 의해 지배되는)이야기가 성립하는 데 핵심적인 것이다. 시간의 배열이라는 관점에서 기술은 의미상으로 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사실, 이야기에서 기술들이 이

53) 이 장면은 포구에서부터 이 마을을 부분적으로 잘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당의 기술 시퀀스séquence descriptive의 용어로는 일종의 ‘부분 제시opération d’aspectualisation’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마을의 성격을 지정하는 부분은 ‘대상 지정opération d’encrage’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술의 부분은 원근법으로 차례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을의 성격을 통해, 전쟁이 내륙 깊이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과 이순신의 군대가 이곳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라는 것은 알려준다.

54) J.-M. Adam, *Op.cit.*, 1985, p.129.

이야기하기에 의해 그 내용이 제시되는 만큼, 기술들도 역시 이야기하기의 내용들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기술에 반드시 이야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에 는 반드시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텍스트 문법 상으로 보면, 이전의 문장의 연쇄를 분절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이야기와 기술 간의 관계가 제대로 설명되기 어렵다. 하지만 이야기, 기술, 논증, 설명, 대화 같은 고착화된 의미 단위를 통해서라면,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해 텍스트 구성요소들 간의 기본적인 결합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과 이야기 간의 명백한 충분조건의 관계는 텍스트를 이루는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로서 텍스트 문법의 주요한 한 항목이 될 수 있다. 다음 이야기 시퀀스를 보자.



[도식 355] 이야기 시퀀스

위 이야기 시퀀스는 행동의 기호학의 제시하는 이야기 모델modèle narratif의 형식과 유사하다. 이야기 모델이 의미 단위에 치중하고 있다면, 이야기 시퀀스는 개별적인 발화문, 즉 이야기 문(Pn: Propositions narratives)에서 이야기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최초의 상황Situation initiale과 최후의 상황Situation finale을 통해서 술어의

55) J.-M. Adam, *Op.cit.*, 2009, p.57.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Pn2~Pn4를 통해서 행동의 부분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기호학에서는 시련이 차지한다. 이야기 시퀀스는 보편적으로 발화체를 다루는 것을 목표하기 때문에 개별 발화문에 그 역할을 할당했다.⁵⁶⁾

이렇게 이야기의 구조가 정해지면, 기술이 들어갈 부분을 예상할 수 있다. 최초의 상황이나, 최후의 상황이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량이 큰 소설에서는 큰 이야기 구조 하에 수많은 하위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하위 구조들에 많은 이야기, 즉 하위 일화들이 배치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하나의 소설 작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 수많은 기술의 부분들이 배치될 수 있다. 이야기를 위와 같이 도식으로 나타내었을 때, 다른 텍스트 구조들과의 결합 관계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기할 것은, 논증, 설명 등도 오래전부터 고착되어 온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구조들은 다른 구조들과의 연계성을 기술하는 데 상당한 편의를 가지고 온다. 예를 들어, 논증의 논거 부분에 이야기 시퀀스가 결합될 수 있고, 이야기 시퀀스의 행위 부분에서 설명 부분이 연계되면서 최후의 상황이 가져야할 개연성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다른 모든 텍스트 부분들에게 필수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다시 말해, 논증은 논증 자체로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기술을 포함하여, 설명이나 대화 역시, 구성할 때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는 이 모든 다른 구성요소들이 필요하다. 이야기의 논리는 개연성이다. 개연성은 논증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와 다르다. 개연성은 ‘사실임직 함’, 즉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궁할 수 있는 ‘그럴듯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연성은 이야기의 뼈대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 설명, 대화, 논증들이 내밀하게 이야기의 뼈대에 살로 붙으면서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

56) 마지막 ‘PnΩ’은 이야기의 교훈 부분을 나타낸다.

V. 결론

텍스트 문법이 구성과정에서 만나는 가장 높은 장애물은 텍스트의 혼질성이다. 하지만 텍스트 혼질성은 텍스트 문법 구성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행위의 혼질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규칙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언어학의 임무이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설명한 이야기의 도식 역시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기호학의 노력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다음 최용호의 언급⁵⁷⁾을 보자.

기호학 이론의 장점이 무엇보다도 방법론에 있다고 하는 데에는 학자들 사이에 아마도 커다란 이견이 없을 것이다. 도식은 그러한 장점을 잘 보여주는 기호학적 분석 모델 중의 하나이다. 국내 학계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동안 주로 방법론적인 시각에서 도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를테면 하나의 도식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문학,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서사 텍스트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가 앞서의 논의에서 중심으로 삼았던 이야기에서, 이야기의 구조와 지향성만 강조되면, 이야기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다양한 측면들은 이야기가 가지는 선택적인 요소들이 아니다. 어쩌면,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한 전략에서

57) 최용호, 「기호학에서의 도식 개념에 관하여: 서사도식, 정념도식, 긴장도식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88권, 2011, p.790. (pp.789-823) 최용호는 같은 논문에서 도식 개념으로 인접학문들과의 관계 역시 밝혀내려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언어학과의 관계 부분을 지적하는 점은 인상적이다. "도식이라는 개념이 기호학 인접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 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도식이라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언어학에 도입한 사람은 이른바 언어학 glossématique의 창설자인 엘름슬레우이다. 이를테면 그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소쉬르의 랑그를 재해석해낸다. 파리학파의 기호학이 엘름슬레우의 구조언어학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의 도식 개념과 기호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식 개념을 서로 비교해보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Ibid.*, p.792.

는 이야기의 뼈대보다도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언어학과 기호학은 모두 텍스트의 혼질성을 해결하려는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점은 어떤 관점에서는 언어학과 기호학의 접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들, 즉 기술, 논증, 설명, 대화와 같은 형태들은 다른 텍스트의 부분으로서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호학은 도식과 관련하여 텍스트의 구조를 밝히는 데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야이다. 하지만 이 분야는 이 도식들과 발화체들과의 구성관계를 밝히지는 못했다. 기호학은 이러한 점 때문에 더 언어학으로부터 구별되는 학문이 되었을 것이다. 언어학은 문장의 한계 때문에, 텍스트의 구성단위들을 추상화해내는 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단위들이 분야들마다 유사한 듯,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항상 분석의 결과를 읽을 때, 한 분야의 이론을 잘 따라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때 대상에 얽매이기 보다는 관점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텍스트는 혼질적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호학과 언어학은 충분히 서로의 이론을 통해 서로 포함 관계를 떠나, 상보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호학은 텍스트의 구조와 함께 구조의 살을 이루는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도식화 할 수 있을지 텍스트 언어학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학은 기호학이 지난 기간 동안 정의해왔던 도식들과 텍스트 구조의 의미적 차원의 해석을 텍스트의 실질에 적용하여 단위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언어학은 수많은 노력에도 정확히 이렇다 할 방법론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머신 러닝을 하는 인공지능에 수많은 텍스트의 검토를 맡겨야 할지도 모른다. 텍스트 언어학은 이론적으로 언어학적인 자산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언어학 역시 수많은 갈래로 나뉘었다. 텍스트 언어학은 파롤의 언어학이다. 하

지만 분석의 결과로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랑그의 언어학이 보여주는 결과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서론에서 언급한 벤베니스트의 초언어학의 이상을 다시 한 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문장을 뛰어넘고자 한 초언어학의 이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위에서 다루었던 서사 기호학이 그러하고, 바르트의 다양한 기호학 관련 연구가 그러하며, 아당을 중심으로 텍스트 언어학에 한 획을 그은 한 스위스 언어학자들의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 텍스트가 혼질적인 만큼, 텍스트 언어학이 활용하는 방법론 역시 다양해야 한다. 복잡한 병을 치료하는 데 다양한 의술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참고문헌

- 김훈, 『칼의 노래』, 서울, 문학동네, 2012.
- 김휘택, 「이야기 시퀀스의 논리에 대하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56집, 2016, 351~385쪽
-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서울, 민음사, 2003.
- 아리스토텔레스 저, 김한식 역, 『시학』, 펍킨 클래식 코리아, 2010.
- 최용호, 「기호학에서의 도식 개념에 관하여: 서사도식, 정념도식, 긴장도식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88권, 2011, 789~823쪽.
- Adam, J.-M., *Genres de récits: Narrativité et généricité des textes*, Louvain-la-Neuve, Harmattan-Academia, 2011.
- _____, *La Linguistique textuelle*, Paris, Armand Colin, 2011.
- _____, *Les textes: types et prototypes*, Paris, Armand Colin, 2009.
- _____, *Linguistique textuelle: Des genres de discours aux textes*, Paris, Nathan, 1999.
- _____, *Le texte narratif*, Paris, Nathan, 1985.
- Adam, J.-M. et Heidmann U., *Science du texte et analyse de discours: Enjeux d'une interdisciplinité*, Genève, Slatkine Erudition, 2005.
- Authier-Revuz, J., "Hétérogénéité(s) énonciative(s)", *Langages*, n°73, 1984, pp.98~111.
- Bally, C., *Le Langage et la vie*, Droz, Genève, 1965.
- Bourdieu, P., "Le fétichisme de la langue", avec L. Boltanski, *Actes de la recherche*, n°4, 1975.
- Brémont, C., "La logique des possibles narratifs", *Communications* n°8, Paris, Seuil, 1966.
- _____, *Logique du récit*, Paris, Seuil, 1973.
- Combettes, B., « Typologie syntaxique et grammaire de texte », *Linx*, n°11, 1999, pp. 153~165
- Courtès J., *Analyse sémiotique du discours: De l'énoncé à l'énonciation*, Paris, Hachette, 1991.
- Culioli, A., *Opération de détermination*, Paris, Université Paris VII, 1984.
- Dällenbach, L., "Réflexivité et lecture", *Revue des sciences humaines*, n°177, 1980, pp.32~33.

- Denis, S., «Introduction à la grammaire de texte», *Actes de la session de linguistique de Bourg-Saint-Maurice 4-8 septembre 1977*, Paris, Publications du Conseil scientifique de la Sorbonne nouvelle-Paris III, 1977, pp.6-63.
- Foucault, M., *L'Archéologie du savoir*, Paris, Gallimard, 1969.
- Greimas, A.-J., "Préface", in *La sémiotique narrative et discursive*, Joseph Courtés, Paris, Hachette, 1993.
- Jeandillou, J.-F., *L'analyse textuelle*, Paris, Armand Collin, 2011.
- Kleiber, G., *La Sémantique du prototype*, Paris, P.U.F., 1990.
- Mahmoudian, M., *La Linguistique*, Paris, Seghers, 1989.
- Maingueneau, D., « Les analyses du discours en France », *Langages*, n°117, 1995, pp.5-11.
- _____, *Genèses du discours*, Bruxelles, Mardaga, 1984.
- Rastier, F., *Arts et sciences du texte*, Paris, PUF, 2001.
- Ricoeur, P., *Temps et récit I*, Paris, Seuil, 1983.
- _____, *Temps et récit II : La configuration dans la récit de fiction*, Paris, Seuil, 1984.
- Slakta, Denis, "Esquisse d'une théorie lexico-sémantique : pour une analyse d'un texte politique (Cahiers de doléances)", *Langages*, n°23, 1971, pp. 87-132.

www.iletaitunehistoire.com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miotics and linguistics for the problem of heterogeneity of the text: Focusing on narrative structure

Kim, Hui-Teak

In this article, we will study the role of structural analysis of narrative as an effort to solve the problem of text heterogeneity. First, at the structural level, we want to look at the process of transforming an event into a narrative. The event is the substance of the linguistic act of history. That is to say, examining this process is essential to understanding the segmentation process of an event. In order to explain the complexity of the text, we will also give a brief description of the structure of the text proposed by text grammar and narrative semiotics. The narrative is not only about the structural dimension of the story's composition and its intentionality. Various elements such as description, explanation, argument, etc. participate in the composition of the story.

Describing the interrelationships of these elements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structing a text grammar with a different direction from phrase-based grammatical descriptions. We will want to anticipate that in the future, if various academic fields related to text form a cooperative relationship centered on the problem of the heterogeneity of the text,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a new level of relationship between semiotics and linguistics.

Keywords : text grammar, narrative semiotics, heterogeneity of text, text structure, event, story

투고일 : 2018. 05. 21. / 심사일 : 2018. 06. 08. / 심사완료일 : 2018. 06. 13.

